

포토에세이

한국의 풍경, 한국의 마음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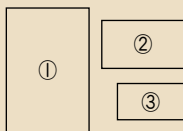
그리운 金剛山의 秘境

글 이흥우 시인 · 본지 편집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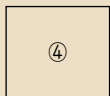
“누구의 주재(主宰)인가…”(많은 사람들이 ‘주재’를 ‘주제’로 잘못 불렀다)로 시작되는 〈그리운 금강산〉(韓相億 시, 崔永燮 곡)은 아마도 한국의 가곡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애창된 노래일 것이다.

중국 송의 대시인이며 문장가며 명필인 소동파(東坡 蘇軾)도 “고려국에 태어나서 금강산을 한번 보고 싶다(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고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데, 소동파는 한 이웃나라의 사람으로서 천하의 명승인 금강산을 보고 싶어했을 테지만, 한국인들이 50년의 분단을 겪으며, 혹은 무심히, 혹은 더 절실하고 애절하게 부르는 〈그리운 금강산〉의 노래에 담기는 금강산에의 그리움은, 또한 그만큼 더 각별한 것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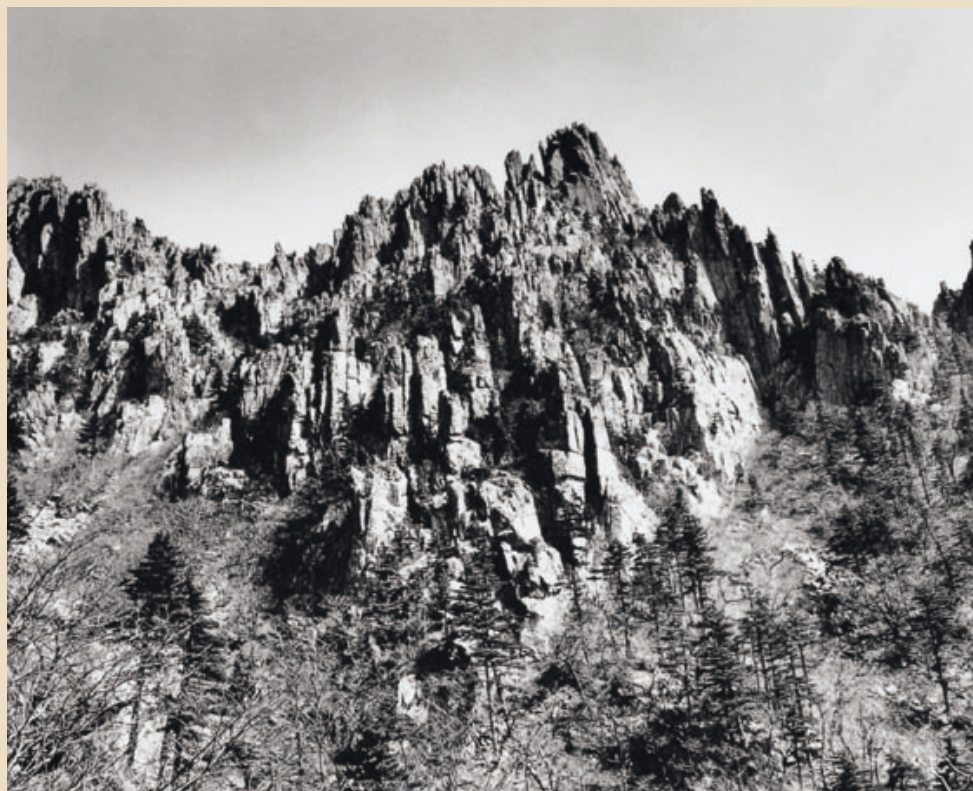
- ① 구룡폭포(九龍瀑布) : 오른쪽 위 바위벼랑에 해강(海岡 金圭鎮, 1868~1933)의 독특한(더 직선적인 자획) 예서체의 큰 글자로 새긴 ‘彌勒佛(미륵불)’이 있다. 佛자의 오른쪽 내리그은 길고 긴 수직의 획이 42척이라고 한다
- ② 귀면암(鬼面岩) : 설악산의 귀면암과 비교도 해보고…
- ③ 삼선암(三仙岩) : 삐죽삐죽하게 치솟은 3개의 바위 봉우리는 그림에도 많이 나오며, 현대의 동양화가 소장(小亭 卞寬植, 1899~1976)도 ‘삼선암’을 거듭 그렸다





④ 옥류담(玉流潭) : 주위의 절경이 구슬같이 흐르는(玉流) 물을 더 옥처럼 굴리고, 옥처럼 흐르는 물이 절경을 더 절경으로 빛낸다

⑤ 만물상(萬物相) : '호랑이라고 생각하면 호랑이고, 곰이라고 생각하면 곰이고, 학이라면 학, 신선이라면 신선...' 온갖 바위들이 만물의 모습으로...





나는 1980년에 ‘금강산의 관광 개방’을 제안한 일이 있었다(『空間』 1980년 3월호 ‘남북관계의 슬기로운 개선편’). 동해안을 북상해 금강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남북이 각각 닦는다. 그리고 우선 외국인을 상대로 한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한다. 남쪽의 고속버스에 관광객들을 태우고 휴전선에 가서 간단한 입국절차를 마치고 그냥 그 버스로 금강산까지 내쳐 간다. 그것이 불편하면, 그곳에서 북조선의 버스로 갈아 태워도 좋다.

북은 보이고 싶지 않은 곳은 일절 보이지 말고 오직 보이고 싶은 금강산만을 관광 시키며, 최대한의, 또한 합리적인 외화벌이를 한다. 성과가 좋아지면 외국인뿐 아니라 차차 내국(한국)인으로 확대한다. 다행히 고려국에 태어났으나 ‘알고도 못 고치는 해소병처럼’ 50년을 그리워만 하고 가보지 못하던 한국인들은 ‘그리운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어서 좋고, 불행히 고려국에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들도, 소동파가 이루지 못한 금강산 관광의 소원을 성취해서 좋다. 북은 북대로 무기수출이나 마약밀수와는 달리 평화롭고 건전한 외화획득을 함으로써 ‘악의 축’을 말하는 부시의 입까지도 틀어막을 수 있어서 좋다.

물론 이런 안이한 발상에는 난점이 있다. 금강산 관광 개방을 통해 야금야금 북에 자유의 바람이 들어간다는 것은 북의 정권으로서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북의 당국자가 그런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러므로 1999년부터 시작된 현대그룹의 ‘금강산 사업’에서는 그것을 아는 북 당국이 최대의 방어, 최대의 대책, 최대의 이익을 확

⑥

⑥ 천화대(天花臺) : 동글동글 치솟은 바위 꼭대기의 소나무, 저쪽 구름 안개 사이의 봉우리와 능선들이 ‘하늘나라의 꽃(天花)’을...



보하는 계약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북의 당연한 권리옹호, 이익확보였다.

그러나 현대와 북 당국 간에 맺은 금강산 사업계약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맹점이 있었다. 우선 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해야 할 금강산 사업계획이 경제원리를 싹 무시한 것이다. 매사에는 적절한 값(시세)이 있고 특수한 상황에서 시세보다 다소 비싼 값을 매길 수는 있으나, 1인당 200달러라는 입산료는 '전대미문'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터무니없는 것이었고, 더구나, 관광객이야 있든 없든, 2005년까지 9억 4천 200만 달러를 현대는 북에 지불해야 한다는 '럼섬(일괄지불) 방식'이라는 희한한 계약을 맺었다.

둘째로 '관광'이라는 것은 즐겁게 재미를 느끼며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금강산 사업을 따라 그리운 금강산을 찾아간 관광객들은 마치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대를 일렬종대로 통과하는 듯한 심정으로 금강산 구경을 해야만 했다.

그런 관광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경제원리도 없고 윤리적인 근거는 더욱 없다. 2001년 여름에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은 3억 6천 600만 달러의 돈을 금강산 일만이천봉에 주렁주렁 매달아놓고 날개를 접을 위기' (야당의원)라는 말과 '금강산 사업은 냉전종식을 위한 이정표'이며 '상징적 의미의 남북관계를 위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여당의원)는 주장이 엇갈렸다. '냉전종식'을 위한 남북관계의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 고심참담하는 우리 정부의 충정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간의 금강산 사업에는 애초부터 구제할 길이 없는(북의 왕창 한탕주의로 끝낸다면 몰라도) 맹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정수(李正洙) 사진전 / 금강산의 비경>(2002. 4. 19~5. 7, 選화랑)을 보면서 '구제의 여지가 없는' 금강산 사업에서도 '그만그만한 어떤 성과를 찾을 수는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 동안 수십 년을 두고 <그리운 금강산>의 노래를 불러온 많은 사람들이 '그림엽서'나 낡은 옛 사진이나 홍보물의 금강산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의 사진작가가 오늘의 감각, 오늘의 눈으로 잡은 오늘의 금강산의 비경들을 보게 된 것이다.



사진작가 이정수 씨는 1999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길에 30여 회나 참가하며 사계에 걸쳐 수많은 오늘의 금강산의 표정을 사진에 담았으며, 이미 2000년부터 몇 차례의 <금강산 사계전>(서울, 금강산 온천장 온정각 등), 그리고 인사동 문화거리의 <백두산 특별전>(2000년) 등의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은하계 우주에서 보면 태양계는 사소한 것이고 태양계에서 보면 지구는 사소한 것이며 지구에서 보면 금강산은 사소하고 금강산으로 보면, 한 인간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쩔 수 없이 아주 사소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므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제일 소중하고 인간이 위대하다는 생각도 한다. 그리고 인간이 위대한 것만큼 자연은, 금강산은, 지구는 또한 더욱 위대할 수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내가 소중하고 내가 위대한 그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또한 위대한 것이다.

인간이 소중하고 위대한 나만을 위해서 소중하고 위대한 다른 사람을 악용하는 것도 구제받지 못할 일이지만, 인간이 인간의 경제적 더구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서 지구를, 자연을, 수수만년을 살아온 위대한 금강산을 이용 이상으로 악용한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구제도 용서도 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생각이 금강산의 비경 사이를 자꾸 구름처럼 바람처럼 떠돌았다. 🌈

사진 제공 : 이정수 사진작가

⑦

⑧

⑦ 망양대(望洋臺)에서 바라본 집선연봉(集仙連峰) : 금강산의 여름의 이름인 봉래산(蓬萊山)은 또한 신선이 사는 산이다. 신선들이 모여 노는(集仙) 듯한 먼 봉우리 가까운 봉우리

⑧ 해금강(海金剛) : '수수만년'을 눈보라 비바람과 바닷물에 부대끼고 견디어온 바위들이 변화무쌍한 바닷가의 아찔하기한 경치를 이룬다